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3호 【루계 제24596호】 주체103(2014)년 7월 2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인 룡군대장 변인선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룡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동지, 부대정치위원인 해군소장 박태수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은 해군부대안의 지휘관들을 그 어떤 망망대해에서도 부대를 이끌고 가이 최고사령부의 작전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지휘성원들로 준비시키며 해군부대안에 수영훈련열풍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영능력판정훈련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서해함대가 각각 중대대형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5km 거리에 있는 귀환점을 돌아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수영능력판정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안의 모든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판정훈련에 앞서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의 지휘성원



하며 판정에서 김정은해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수영능력판정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켜보신다는것을 자각하고 바다속에 뛰어들어 해군 지휘성원들은 강한 인내력과 의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평시에 련마해온 수영능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지휘성원들의 수영동작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수영능력판정훈련에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영능력판정훈련에 대한 평가와 총화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판정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해병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수영훈련을 제도화, 생활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해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수영능력판정을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관철하여 조국의 푸른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들을 만나시고 동서함대를 무적의 함대로 준비시켜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은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해군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전투력을 비상이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대가 싸움을 잘하자면 지휘관들부터가 싸움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은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뿐만아니

라 육체적으로 준비된 지휘관들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서열의 제일선에 서야 할 지휘관들이 사상정신상태가 아무리 좋고 군사기술적 자질이 높다고 해도 육체적능력이 따라 서지 못하면 지휘관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튼튼히 준비되여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언제나 군인들의 앞장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병들은 높은 수영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 지휘관들이 수영의 능수가 되여야 해병들을 이끌고 망망대해에서도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하는 해상작전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군 지휘성원들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수영능력판정훈련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관동지 앞에서 진행하게 되는 수영능력판정훈련을 포성없는 전투마당으로 생각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은 나라 강산에 태양의 노래 울린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진다.

장장 20성장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실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빛난다.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에서 개선문까지!

우리 수령님의 항일혈전사가 그 길에 력력히 어려웠다. 그 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전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헤쳐실수 있는 력사의 길이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시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아래 짓밟혀 신음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두고 결사항전의 피 끓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대의 시절에 결단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다. 그 누군가가 지은 《암흑구의 노래》를 부르시며 성스러운 그 길에 나서시던 그때의 심정을 담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밭이 숨쉬어 어려웠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혈전만리를 헤치시었다.

성스러운 그 길을 자욱자욱 따를수록 주체의 가치,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 찬란한 꽃을 피우셨다.

일제기 선행한 운동가들과는 전혀 다른 길,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길에서 주체의 심원한 진리를 밝히시고 그를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발표하신 고전적작품들은 자주정치의 대가이신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과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폐격하고 혁명적조작로선을 관철하자》,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에서 개선문까지

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

로작들마다에 즐기게 관통되어있는것은 바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그 주인인 조선인민이 수행하여야 한다는것, 조선의 혁명가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자제의 혁명력량을 토틀히 꾸리고 거기에 철저히 거하여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념, 자주의 신념이다.

항일의 나날에 이어 오늘도 빛나는 구호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구호에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자주정신과 신념이 력력히 빛발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아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는 우리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자주적인 혁명평등사상과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인민의 가슴속에 고귀한 보물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을 건설하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는 문제로부터 식량과 피복문제, 치료사업과 출판물발간 등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시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고의 항쟁사가 끊이쳐간 평야와 산밭들에 새겨주신 진리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해치신 항일전의 피어린 길이 뻗어있어 어려웠다. 40명으로부터 18명으로 줄어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벼를 에이는 추위와 허리치는 장설속에 묻혀 총처럼 전진하지 못하고있는데 적들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이리데처럼 달려든 라자구등판의 광경이며

축한에 걸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의 속에 빠져있는 유격대원들에게 불리주었던 《반일전기》를 오늘도 실어오는 천교령의 눈바람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었는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모진 추위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에서 개선문까지

와 굶주림,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속에서 100여일간에 걸쳐 강행한 고난의 행군은 또 얼마나 간고했었는지... 그 나날을 잊지 못해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자구등판에서 겪은 고생, 두차례에 걸치는 복판원정과 무승원정은 얼마나 간고한 원정이고 고난의 행군은 또 얼마나 목절 많은 행군인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것을 다 이겨냈다고, 축한도 이겨내고 주림도 이겨내고 그름받처럼 캄캄한 절망도 이겨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 혁명가의 망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말씀이 천만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피어린 길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실천하신 크나큰 업적을 이 글에 어이 다 담으랴만 군민일치의 힘으로 승리를 떨치신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군민일치, 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창조하신 조선혁명의 고귀한 혁명전통이다. 군민일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속에서도 포악한 제국주의강적과 싸워 승리를 떨치게 한 비결의 하나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

서 살수 없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원칙이고 생존방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사립문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군민일치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인민들이 진정을 담아 고백까지 하여준 소라고 하여 그 냥 잡고온것을 되돌려주게 하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갖가지 가슴뜨거운 화폭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떠올리신 군민일치의 숭고한 세계를 감동깊이 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인민을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인민을 허술히 대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한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인민의 사랑을 잃는것이라고 하시며 군민일치를 더없이 증시하시고 그 미용이 활짝 꽃피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아에 군민일치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실천하는 크나큰 위력을 떨치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길에서 사랑받지 못모님과 삼촌도 동생도 잃으시며 우리 수령님 겪으신 모진 풍상고초가 오늘날도 어려와 인민의 눈물을 뜨겁게 적신다.

조국해방은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평도와 함께 그이께서 겪으신 모진 고생과 회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귀중한 결실이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 삼천리강산을 진감한 그날의 환호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실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크나큰 업적이며 대대손손 온 민족과 후손들의 격찬속에 길이 빛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것인 인민의 마음달아 유서 깊은 모란봉기슭에 개선문이 정히 세워졌다.

오늘도 개선문의 웅자를 바라볼수록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울고 울으며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우러러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울고 울으며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정평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인민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정평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인민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성은 20성장 백두산 줄기줄기, 암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포악한 제국주의강적 일제를 실천하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와 영광이었고 력사의 침송이었다.

조국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삼천리강도가 설레이던 그 나날 이 나라의 시인이 터친 《김일성장군만세》의 구절구절이 시대의 메아리가 되어 강산을 울린다.

... 누구나 장군은 없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없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린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 장군은 만민의 형상,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쳐라!

장군은 장군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장군은 장군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장군은 장군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장군은 장군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장군은 장군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실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크나큰 업적이며 대대손손 온 민족과 후손들의 격찬속에 길이 빛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것인 인민의 마음달아 유서 깊은 모란봉기슭에 개선문이 정히 세워졌다.

오늘도 개선문의 웅자를 바라볼수록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울고 울으며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우러러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울고 울으며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정평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인민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정평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인민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장군은 장군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인선 사진 쓴사기자 김종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김 사 사

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각하

나는 귀국의 독립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협조의 뉴대가 더욱 확대강화되리라고 믿으면서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 103(2014)년 6월 30일

부총무라

공화국 대통령

베에르 은쿠룬지자 각하

나는 부총무독립 5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인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 103(2014)년 6월 30일

끼 깔 리

공화국 대통령

블라가 메 각하

나는 트란다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인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좋게 발전하고있는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 103(2014)년 7월 1일

항일혁명전쟁사에 빛나는 전투들

소영자령에 올린 첫 총성

새로운 혁명적투쟁력이 탄생한 안도평에서 총소리를 크게 울리실 결심을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2년(1932)년 5월 소영자령에서 첫 전투를 조직하시었다.

지방조직으로부터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적수총대가 명월구에서 안도방향으로 떠났다는 통보를 받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을 이끌고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진출하시어 그들을 길목양쪽에 매복시키시었다.

첫 전투에 참가한 대원들의 흥분된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계지대를 찾아다니시며 매복전투는 우세한 적들이 자기 힘을 다 나타내지 못하도록 불의에 타격하는 전투형식이 라고 신심을 북돋우시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일본지도관들이 지휘하는 적수총대가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의 행렬이 매복구역에 완전히 들어서자 바위우에 올라서시어 사격명령을 내리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의 백두산(주령)들에 노루발족이 문손잡이로 달려가 된 때로부터, 다시 말하여 소백수령에 우리들의 보급자리가 꾸러지게 된 때로부터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되었다.》

소중한 추억을 불러오고있다. 백두산밀영에 자리잡은 귀틀집들에 달려있는 노루발족문손잡이,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 빨색산귀틀집의 문손잡이를 더듬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갑자기 습격을 당한 적들은 적아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총질을 하였으며 많은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영자령에서 일본지도관들이 인솔하는 적수총대를 들이

유명한 일화를 낳은 간삼봉전투

간삼봉전투는 주제 26(1937)년 6월말에 진행되었다. 전투에 앞서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정규전병을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병을 주동적으로 활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혁명군부대들이 먼저 산봉신을 차지하고 적들이 골짜기에 몰리게 유도하며 부대배치에서도 도식을 범하지 말고 적들이 유격대가 주의를 덜 돌릴 것이라 고 불수 있는 곳에 력량을 많이 배치하고 전투과정에 부대들이 수침을 리용하여 좌우로 빨리 기동하면서 력기응변하도록 하시었다.

6월 30일 적들이 간삼봉으로 되었다. 간삼봉전투는 주제 26(1937)년 6월말에 진행되었다. 전투에 앞서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정규전병을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병을 주동적으로 활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혁명군부대들이 먼저 산봉신을 차지하고 적들이 골짜기에 몰리게 유도하며 부대배치에서도 도식을 범하지 말고 적들이 유격대가 주의를 덜 돌릴 것이라 고 불수 있는 곳에 력량을 많이 배치하고 전투과정에 부대들이 수침을 리용하여 좌우로 빨리 기동하면서 력기응변하도록 하시었다.

6월 30일 적들이 간삼봉으로 되었다. 간삼봉전투는 주제 26(1937)년 6월말에 진행되었다. 전투에 앞서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정규전병을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병을 주동적으로 활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혁명군부대들이 먼저 산봉신을 차지하고 적들이 골짜기에 몰리게 유도하며 부대배치에서도 도식을 범하지 말고 적들이 유격대가 주의를 덜 돌릴 것이라 고 불수 있는 곳에 력량을 많이 배치하고 전투과정에 부대들이 수침을 리용하여 좌우로 빨리 기동하면서 력기응변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이 크지 않은 사적품에도 체현되어있기때문이다. 크지 않은 사적품이 항일혁명사의 중요한 력사적사거기를 구분 짓고있었다.

단 상

빨찌산귀틀집의 문손잡이

항일혈전의 나날 조선혁명의 책임자인 동시에 심장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중핵적인 작전거기, 활동거기, 후방거기 또 떠오른 백두산밀영, 주체의 붉은기가 백두산밀영에서 높이 휘날린 그때로부터 조선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이

곳에서 구상되고 설계되고 행동에 옮겨져 조국해방의 력사의 날을 알렸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의 항일혁명사는 미국의 치욕을 안고 모태알처럼 출어졌던 우리

인민들에게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었고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를 쳐이긴 과정이었다. 그래서 백두산밀영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빨찌산귀틀집의 문손잡이를 향해트록 마음속에 새겨안고있는것이다.

간삼봉전투의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으며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사에서 하나의

인민들에게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었고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를 쳐이긴 과정이었다. 그래서 백두산밀영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빨찌산귀틀집의 문손잡이를 향해트록 마음속에 새겨안고있는것이다.

간삼봉전투의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으며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사에서 하나의

인민들에게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었고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를 쳐이긴 과정이었다. 그래서 백두산밀영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빨찌산귀틀집의 문손잡이를 향해트록 마음속에 새겨안고있는것이다.

간삼봉전투의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으며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사에서 하나의

인민들에게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었고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를 쳐이긴 과정이었다. 그래서 백두산밀영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빨찌산귀틀집의 문손잡이를 향해트록 마음속에 새겨안고있는것이다.

칠길 노루발족 문 손안쪽과

리 알려진 《호박대거리》 일화를 남기었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일관하게 견지하신 확고한 주제적립방이였다.

라진해방전투승리를 안아온 작전도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일관하게 견지하신 확고한 주제적립방이였다.

주제 34(1945)년 6월 소부대성원들을 이끌고 사상산비밀련락장소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진인민무장대의 최후작전계획을 지도하시었다. 사항산의 이름있던 바위우에서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한 력사적인 회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날 적들의 무력배치상태를 로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무장대의 사명에 맞는 라진해방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완성시켜주시었다. 라진항을 만리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고 주도세밀하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깥쪽의 노루발족을 력원한 자그마한 문손잡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희귀한 문손잡이이다. 사연깊은 문손잡이를 소중히 가세에 안아보느라 숨쉬는 걱정을 금할수

없다.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조선지도에 등잔불을 비추기시며 조국해방의 웅대한 구상을 무의히시던 백두산청년장군, 때로는 걸잡이는 피곤을 이겨내시려고, 때로는 작전계획을 완성한 기쁨과 흥분이 조용히 문을 열고 트락에 나서시어 밀

림속을 건너시던 우리 수령님의 체취를 그대 로 품기여오는 백두산밀영의 노루발족문손잡이! 빨찌산귀틀집의 문손잡이를 천만근은 언제나 마음속깊이 소중히 간직했었다. 주체혁명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쓴사기자 림 정 호

문을 열고 트락에 나서시어 밀

